

여성해방운동이 서양복식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1850~1950)

곽 미 영 · 정 흥 숙

중앙대학교 의류학과

A Study on the Influence Made by the Women's Emancipation Movement (1850~1950) on Western Clothing

Mi Young Kwak and Hung Sook Jung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hung-Ang University

(1991. 3. 22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primarily aimed at the revealing changes in the aspects of women's clothing derivated with the women's self-consciousness, liberation movement, women's suffrage and social participation from the mid-19th century to the mid-20th century.

According to the study, the main change of western women's costumes were eradication of corset, emergence of trousseurs and tailored suit, and transformation of sportwear.

So that, women's liberation movement has an deep effect on leading up to a change tendency the functionalization and masculinization of women's costume.

I. 서 론

복식은 인간이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 중 하나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그대로 반영하며 시대적 배경과 특정한 사건들로 인해 변화발전하는 것이다.

혼(Horn), 리치(Roach), 그린우드(Greenwood)등도 복식의 변천이 사회 현상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들 또한 복식의 변천요인으로 여성해방 운동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충분한 자료의 고찰이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절감하여 연구에 임하게 되었다.

인권이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권리를 의미하

는데 여성들은 그 인권을 근대에 와서야 찾기 시작하였다. 남녀평등권의 확립이 어디까지나 여성 스스로가 능동적 적극적 자세로 노력하여 성취해야 될 문제¹⁾라고 깨달은 여성들은 우선적으로 복식에 있어서의 변혁을 꾀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해방 운동에 관해 여러모로 분석하고, 여성해방 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여성복식의 변화양상을 중심으로 여성해방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여성복식 변화에 영향을 미친 1850년대부터 제 2차 대전 종전직후까지를 연구의 한계 범위로 정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방법으로는 여성해방 운동에 대한 정의 및 목적 그리고 개괄적인 발달과정을 먼저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고찰하였고, 여성해방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었던 것과 관련하여 여성복식의 변화양상을 문

현, 슬라이드, 사진자료 등을 이용하여 고찰하였다.

II. 여성해방 운동과 복식에 관한 문헌적 고찰

본 장에서는 여성해방운동(Women's Liberation Movement)의 정의 및 목적과 19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활발히 진행되었던 여성해방운동의 발달과정에 대해 간략히 고찰한 후 여성해방 운동과 복식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여성해방 운동의 정의 및 목적

여성해방이란 과거의 고정된 사회제도 속에서 여성에 대한 고압적인 관념과 제도적인 역할 규정과 여성 자신에게 부과된 지위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가정과 사회생활을 인식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발휘하여 남성과의 인간적인 관계를 새롭게 재형성해야 할 과업이며 여성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몸부림인 것이다²⁾. 다시 말하면 여성해방 운동이란 수동의 세계에서 벗어나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선택하려는 움직임³⁾이라고 하겠다. 여성해방은 남녀평등권의 확립을 위해 여성 스스로가 능동적 자세로 노력하여 성취해야 하며, 잘못 인식된 '여성'이라고 하는 신비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하여 여성 에속론으로부터 탈피하여야 하는 것이다⁴⁾. U.N.이 1975년을 '여성의 해'로 선포하고 그 이념을 '평등, 발전, 평화'로 정한 것처럼 "여성도 인간이다 라는 지각 위에서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에 자주적인 시민의 역할을 해야 하며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해야 한다는 의식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⁵⁾. 또한 여성해방 운동은 법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및 문화적인 남녀간의 지위의 불평등을 없애기 위한 운동이다. 즉, 인류의 이상에 비추어 사회를 이상적으로 개조하고자 하는 사회운동으로서의 남녀평등 운동인 것이다. 여성해방 운동은 여성이 처한 현 상태의 남녀관계에서 열등하고 에속적인 지위를 극복하고, 불평등을 조장하는 사회구조적인 요인을 이해하여⁶⁾ 여자의 속성이 자연적이며 천부적 본성인 것으로 남자를 차별하는 사회적 관념으로 뿌리박힌 상태를 여성 스스로 타파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여성해방 운동의 발달과정

원시시대에 여성이 지배하던 모권사회의 흔적이 고대

문명 국가의 특성중의 하나이듯이 그 당시의 남성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수렵생활로 여생을 마쳐야 하는 운명으로 인해 남자의 권위와 지배가 성립될 수 없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결혼계약서에 남자가 아내에게 정절과 복종을 서약했으며 결혼생활에서 정절은 남편이 지켜야 했고 위반했을 경우 그는 처벌을 받아야만 했다⁷⁾. 그러나 중세 이후 가부장제가 완전히 확립되어 여성은 오랜기간동안 억압과 차별을 받게 되었다. 또한 여성은 가부장적 지배하에 불평등이 살아야 하는 존재였으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도 의존적 생활에 안주하게 되어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헤어나려는 의욕마저도 상실하게 되었다. 자립을 원치않는 여성이 자립을 곤란하게 하는 사회를 강화시키는 악순환을 되풀이 해 왔다⁸⁾. 이에 구미선진국의 여성들은 자신들이 평등하지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여성해방 운동을 전개하게 된 것이다.

본 절에서는 근세 이전의 여권운동은 그 활동이 미비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여성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한 18세기 말부터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결정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된 19세기를 거쳐서 여성운동의 결정체인 여성참정권 획득시기까지 프랑스,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그 발전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프랑스에서는 1789년 7월 14일(프랑스 대혁명 발발) 바스티유감옥 공격당시 많은 여성들이 참가했으며, 1848년 2월혁명 그리고 1871년의 파리공민들 민중 혁명에서도 여성들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여성해방 운동의 선구자로서 올랭브 드 구즈(Olympe de Gouges, 1748~1793)가 있으며, 그녀는 인권선언을 모방하여 '여성의 권리선언(1789)'을 발표하였다⁹⁾. 그녀는 "여성은 단두대에 올라갈 권리가 있으므로 의회연단에 올라갈 권리도 있다"¹⁰⁾는 유명한 말을 남김으로써 정치적 권리요구를 하였다. 그후 푸리에의 영향으로 생시몽(Saint-Simon)주의자들은 프랑스 페미니즘(feminism)의 주류가 되었고, 그것을 모체로 조르쥬 상드(George Sand, 1804~1876)의 자유연애론, 플로라 트리스탕(Flora Tristan, 1803~1848)의 여성노동자 해방이 나오게 되었다¹¹⁾. 프랑스의 여류 소설가인 조르쥬 상드는 가장 여권주의적인 소설인 「앵디아나」를 썼다. 이 소설에는 1) 여자는 결혼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사랑에 있어서도 불행한 존재다. 2) 결혼은 가장 타기할 만한 제도이다 라는 주장을 하였고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바지를 즐

거임기도 했다⁶⁾. 또한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영국과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도 방직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여공(女工)의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표적인 여권운동가로는 플로라 트리스탕을 들 수 있는데 그녀 자신이 염색공 출신이었다. 그곳에서 여성 노동자의 운명을 자각하여 40세의 나이로 여생을 마칠 때까지 그녀는 여성 노동자의 운명을 일깨우는 작업에 몰두하였다. 이 당시에는 여성노동자의 실태를 문제로 삼는 것이 여권운동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프랑스는 1944년 4월 임시정부에 의해 여성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인정되었으며 1945년 10월 여성이 처음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였다⁵⁾.

한편, 영국에서도 산업혁명으로 여성노동자들이 확대됨에 따라 그들을 위한 제반문제들이 논의되었고, 18세기말 메리 월스톤크래프트(Mary Wollstonecraft) 등에 의해 여성해방론 및 여성교육론이 등장하였다. 그녀는 영국의 여성해방론의 선구자로서 루소(Jean Rousseau)의 영향을 받았으며 합리주의와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실제의 사회운동의 관점에서 여성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으며 여성들의 예속의 기원을 육체의 허약성에서 찾았다. 그녀는 사람의 성격은 주로 환경에 의해 형성된다고 믿었으며 이 견해를 여성에게 적용하여 여성이 처한

환경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⁶⁾. 영국에서는 1750년 무렵 문학적 성격을 갖고 있는 모임으로 출발한 <블루 스타킹(Blue Stocking)>이라는 모임이 있었다. 처음에는 조롱의 뜻으로 불렸지만 나중에는 <블루 스타킹>이 여성해방, 여성참정권을 주장하는 지식층의 여성들을 통칭하는 의미로 쓰였다⁴⁾. 1866년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1806~1873)은 「여성의 예중」에서 여성의 참정권을 지지하고, 여성 참정권에 대한 청원을 맨처음으로 의회에 제출하였다. 1918년 스토프스(Marie C. Stopes, 1880~1958)는 「결혼애」에서 여성의 고유성을 탐구하면서 성차별 제거를 주장한 사상가였다⁴⁾. 그녀는 노동자 계급의 빈곤, 노동자 계급여성의 질병, 단명의 원인중 하나가 과도한 임신출산이라고 깨달은 후 런던에 빈민 여성을 위한 진료소를 만들고 산아제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와같이 여성운동이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Fig. 1) 영국은 1918년 30세이상 여성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인정하였다.

미국은 1775년에서 1783년까지 독립전쟁이 일어났다. 이 전쟁은 영국 본국의 식민지적 탄압정책에 대한 식민지 미국의 반항으로 발발한 것으로서 이 전쟁에 많은 여성 즉, 자국의 독립과 번영에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⁷⁾. 미국의 독립이 달성되면서 헌법제정 회의에서 여성 참정권의 인정을 각 주(州)에 위임하였는데, 문제의 결정을 위임받은 주(州)는 전부 여성의 참정권을 부정해 버렸다. 1840년 영국에서 개최된 노예해방 회의에서 여성의 참석이 거절되는 사건을 계기로 루크레티아 모트(Lucretia Mott)와 엘리자베스 스탠튼(Elizabeth C. Stanton) 등은 미국 여성의 참정권 획득 운동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1848년 스탠튼 부인은 여성대회를 뉴욕에서 개최하고 여성자신의 노예적 지위에서 해방되기 위한 논의를 하였다⁷⁾. 또한 아멜리아 블루머(Amelia Bloomer)여사는 1850년에 불편한 여성의상 개혁운동의 일환으로써 블루머즈(bloomers)를 「Lily」지에 소개하였으나 이 블루머즈는 10여년 동안 사회문제로 거론되었다. 1870년 헌법개정시 노예제도의 폐지가 규정되고 노예의 시민권이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는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았다⁷⁾. 그후 여성의 참정권 획득운동은 한층 세차게 전개되었으며, 제 1차대전중 각 방면에서 여성노동자들을 필요로 하게 됨으로써 여성의 지위는 상당히 높아졌다. 그 결과 1920년에 미국 전체 주에서 여성의 참정권이 승인



Fig. 1. 1913년의 여성참정권론자들의 모습
Michael and Ariane Batterberry: Fashion, p 266.



Fig. 2. George Sand의 남장모습
Mila Contini: Fashion, p 240.

되었다⁸⁾.

이상과 같이 프랑스, 영국, 미국의 여성해방 운동의 발달과정을 간략히 고찰해 보았으며, 다음 3절에서는 여성해방운동과 복식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여성해방 운동과 복식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가장 활발히 일어났던 여성해방 운동의 여러 이슈(issue)중 하나가 여성의 불편한 의상개혁 운동이었다. 본 절에서는 서구여성해방 운동의 발달과정을 고찰하면서 잠깐씩 언급했던 여성해방 운동가들의 의상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조르주 상드는 프랑스의 여류 소설가로서 리옹클럽(Club Lyonnais)의 회원이었으며 바지차림을 즐겨 입었는데⁹⁾, 그녀의 차림새를 보면 넓고 불룩한 자켓인 à la Malakoff에 바지를 입고 윤을 낸 부츠, 레이스로 뜯장갑, 긴 손잡이를 지닌 작은 우산을 들고 목선이나 허리밴드 그리고 머리를 싱싱한 꽃으로 장식하였다¹⁰⁾ (Fig. 2). 한편 그녀는 여성들을 환영하지 않는 극장이나 레스토랑을 갈때 남장을 하는 등 남녀평등을 복식으로 표출하고자 했던 근대의 대표적인 여성이었다.



Fig. 3. Amelia Bloomer (1851)
Anderson Black: A History of Fashion, p 270.

프랑스의 방직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여공의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했을때 여권운동가로 잘 알려진 플로라 트리스탄은 여성노동자의 실태를 문제로 삼아 여권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녀는 “여성들은 어릴때부터 콜셋으로 몸을 줄라 발육이 부진하고, 지성면에서도 어린시절의 수준에 머물러 인형처럼 애무받고 경멸받는다”⁴⁾라고 비난했으며 여성노동자들의 일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작업복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한편, 영국에서는 문학적 성격을 갖고 있는 모임으로 출발하여 여성해방, 여성 참정권을 주장하는 지식층의 여성들을 통칭하는 의미로 상징화된 <블루 스타킹(Blue Stockings)>이라는 모임이 있었는데⁴⁾, 이 모임에 참가한 벤자민 스틸링플리트(Benjamin Steillingfleet)라는 여성이 항상 푸른 양말을 신고 나와 <블루 스타킹>이라는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불편한 여성의상 개혁운동이 19세기 중반에 일어났는데, 1850년 아멜리아 블루머 여사가 블루머즈를 최초의 여성신문인 「Lily」지에 소개하였다. 이 의상은 무릎길이 정도의 드레스와 그 밑에 주름장식이나 끈으로 오므린 터키풍의 풍성한 긴 바지로 구성되어 있었다(Fig. 3). 이 의상이 10여년동안 사회문제로 논란이



Fig. 4. 남북전쟁중 군의관 메리 워커의 검정색 쓰리피스 슈트 차림
Marilyn J. Hom, Lois M. Gurel: *The Second Skin*, p 217.

되었지만 여성도 남성과 평등하게 바지를 입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시켜 주었다는데 의의가 크다.

그후 남북전쟁 당시 여성군의관이었던 메리 워커(Mary Walker)는 남성복장을 한 것으로 유명하며, (Fig. 4)에서 검정색 쓰리피스 슈트를 입은 모습을 볼 수 있다¹¹⁾.

이와같이 서구 선진국인 프랑스, 영국, 미국의 여성해방 운동가들은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바지를 입을 권리가 있다는 당위성을 강조했으며, 복식을 여권운동의 한 표출수단으로 삼아 불편한 복식에서 여성을 해방시키려고 노력하였으며, 여성복식의 간소화에 공헌하였다.

III. 여성해방 운동이 서구 여성복의 변화에 미친 영향

19세기 중엽이후 서구에서는 여성해방 운동가들의 끊임

없는 노력과 희생 그리고 많은 여성들의 자아의식의 변화를 계기로 여성의상 자체에 변화가 일어났다. 이에 본장에서는 여성해방 운동의 영향으로 변화된 서구여성 복식 중 4가지 요소 즉, 첫째 콜셋의 추방, 둘째 여성복에 바지 등장, 셋째 직업복으로 테일러드 슈트의 등장, 넷째 스포츠웨어의 기능적인 변천에 관해 고찰하고자 한다. 그에 앞서 여성해방 운동의 영향을 받은 4가지 복식과 각 복식간의 상호 긴밀한 영향관계를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식화한 (Fig. 5)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콜셋(Corset)의 추방

여성의 체형을 변형시키고 인체 내부기관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콜셋은 중세 이후에 여성들의 미적 표현의 한 수단이 되어왔다. 또한 치마를 확대시키기 위한 페티코우트나 크리놀린은 그 무게가 엄청나서 여성들이 자신의 몸을 가누기도 어려워 남성들에게 의존해야 했다. 이러한 여성들의 연약함과 아름다움은 '여성 나르시시즘(narcissism), 복종, 의존성'¹²⁾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크리놀린 시대의 여성들은 착시에 의해서만도 이미 작아보이는 허리선을 고문하듯이 꼭 죄는 끈으로 더욱 가늘게 하였다¹³⁾. 실제로 유행에 따라 입는 복식의 부피와 그 무게는 숙녀들을 피로로 쇠약하게 만들었다. 크리놀린 시대의 한 에피소드로 어느 무도회석상에서 허리가 매우 가늘어 그날 밤의 화제의 주인공이 된 한 젊은 처녀가 급사했던 사건을 들 수 있다. 사인은 몸을 너무 심하게 죄어서 콜셋의 압력으로 3개의 갈비뼈가 간장을 찢르고 있었다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사건은 재빨리 유럽의 학계의 반응을 불러 반크리놀린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14,15)}. 이와같이 미적으로 아름답게 보이고 유행을 따르기 위한 콜셋의 착용은 여성의 신체를 속박하여 여성을 하나의 숨쉬는 인형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크리놀린을 착용한 여성들은 생활에 곤란한 점들을 느끼기 시작하였고(Fig. 6), 또 여성복식 양상에 대한 거부감 여성해방 운동가들에 의해 일어났다. '1880년대에 들어와서 여성복의 상당한 무게를 감소시키자는 의복개조 운동에 참여하였던 한 여성이 이에 대한 강연을 들은 후, 그녀가 입고 나갔던 의상의 무게를 잰더니, 무려 40파운드에 달하였다고 한다'¹⁶⁾.

그후 1910년대에는 여성복 스타일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아르데코 패션의 선두 디자이너인 뽀 뽀아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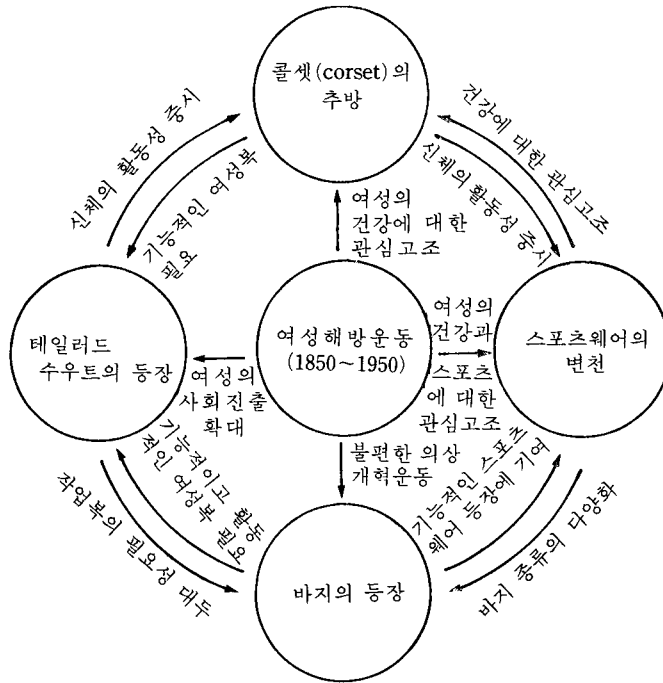


Fig. 5. 여성해방 운동과 복식과의 상관관계



Fig. 6. Crinoline 위에 skirt를 입는 광경 (1865)
F. Boucher: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p 376.

(Paul Poiret)는 그 당시 여성들이 콜셋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욕구가 심화되고 있던 것을 간파하여 콜셋의 육체적인 구속에서 과감히 탈피시켰다. 뿔 뿔아

레가 여성들을 콜셋으로부터 해방시키게 된 동기는 이사도라 던칸(Isadora Duncan)의 무용(Fig. 7)으로 인한 영향이 컸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키톤(chiton)스타일의 드레스를 입고 과거로부터의 탈피와 새로움을 향하는 독창적인 무용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의상 자체가 신체의 움직임에 생동감 있고 자유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자연미를 강조함과¹⁶⁾ 동시에 여성 신체를 콜셋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하였다.

제 1차대전이 발발하게 되면서 군인으로 나간 남자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여성들은 공장노동, 기타 사회적 분업에 종사하게 되었다. 이러한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은 여성복장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으며, 허리를 조이던 콜셋을 추방하고 편안한 의상인 튜블라 스타일(tubular style)을 입는 여성의 수가 많아졌다¹⁷⁾. 중세 이래 4~5세기 동안 여자의 몸을 죄었던 비위생적인 콜셋은 여성들의 사회진출, 스포츠에 대한 관심의 확대, 기능적이고 활동적인 의상에의 추구로 인한 자연적인 셀루엣에 의해 거의 폐지되었다¹⁸⁾. 1920년경에 직선형 셀루엣이 유행되었을 때 많은 여성들은 몸통을 죄는 콜셋에서 해방되었고, 활동하기에 편해졌으며, 속옷도 덜 입



Fig. 7. 미국 댄서인 Isadora Duncan의 무용이 corset의 해방을 촉진시킴 (1903)
J. Huh: Paris Mode 200, p 93.

게 되었다¹⁹⁾.

결과적으로 속옷은 부피가 작아지고 가벼워졌으며 양도 감소되었다. 콜셋과 미드리프(midriff)는 서스펜더 벨트(suspender belt)와 브래지어(brassier)로 대체되었다¹⁶⁾. 브래지어는 1937년경부터 모든 계층의 여성들에게 보급되었는데 신체를 인공적으로 과장시키는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신체보정용으로 애용되었다²⁰⁾. 또한 엘리건트한 차림과 에티켓으로서도 중요한 조건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바지의 등장

복식을 구성하는 다양한 형태 중 바지는 인간의 하체에 착용되는 의복으로 그 구성조건이 양쪽다리에 입혀져 양쪽 다리의 동작기능을 편하게 한다²¹⁾. 또한 바지는 두 다리의 동작을 자유롭게 하는 편리성과 활동성 외에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방한성(防寒性)을 살린 합리적인 복식이다²²⁾.

여성의 지위가 낮고 활동영역이 주로 가정에 제한되었던 시기에 여성복식은 활동에 장애가 되는 형태였으나,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여성의 자아의식이 싹트기 시작하고 자유와 해방을 갈구하게 되면서 여성복식 형태는 남성복식의 특징을 띠는 경향으로 변모하였다¹¹⁾. 그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여성의 바지착용을 들 수 있으며²³⁾, 여성이 바지를 입고자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성(性)의 구별로부터 벗어나는 일이었다.

중세이후 19세기 초까지 여성의 걸음으로서 바지 형태는 거의 존재하지 못하였으며 속옷으로서도 16세기에 이탈리아에서 드로워즈(drawers)형태로 처음 착용되었다²⁴⁾. 프랑스에서는 마리 루이즈(Marie Louise)이래로 판탈렛(pantaleet)이 도입되어 1830년까지 유행되었을 뿐이다. ‘이때의 판탈렛은 여성에 있어서 바지 착용의 실마리를 보여 준 점에서 의의가 크며²⁴⁾ 여성해방 운동의 실현으로 간주된다.

1840년대에 일부 부유층 여성들이 남자 복장을 하고 길거리를 활보하고 다녀도 부유층 여성들의 취미로 간주되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1848년 2월혁명이 지나고 나서 프랑스의 사회주의자로서 유명한 생시몽(Saint Simon)주의자들이 진보적인 운동의 하나로써 여성들의 바지착용을 권유하여 쉐이션을 일으켰다¹⁸⁾. 또한 1850년대에 미국에서는 크리놀린 착용을 반대하는 여성복장 개혁운동이 일어났다. 이것은 여성해방운동의 한 표현으로 여성복식을 혁명화시키자는



Fig. 8. 바지입은 여성이 보임, garden party때 사진촬영 (1935)
Michael and Ariane Batterberry: Fashion, p 312.

쳤이었으며 그 대표적인 의상이 블루머즈 이었다. 이 의상은 여권존중, 남녀평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특히 남성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남성의 옷차림새를 모방한 것'²⁵⁾이라고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와같이 블루머즈가 대중에게 호응을 얻지 못한 이유는 너무나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변화를 보여준데다가 남성의 전용물인 바지를 여성이 걸옷으로 착용하는 것이 남성의 위치에 위협을 준다고 느껴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블루머즈가 패션의상으로는 용납이 안되었지만 그후 집안일을 하는 여성들에게 애용되었다²⁵⁾. 또한 승마와 그외 스포츠가 여성들 사이에서도 성행함에 따라 드로워즈(drawers)나 팬탈롱(pantalon)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블루머즈는 여성들에게 편리하고 기능적인 의상을 제안하고 남자와 동등하게 바지를 입고 활동할 수 있다는 의식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 준 데에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19세기 말에는 여성해방론자들의 수가 많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부인들 사이에서 사이클링(cycling)의 유행으로 블루머즈는 1895년 2월 「Punch」지에서 다시 화제가 되었다²⁴⁾. 19세기말부터 제 1차세계대전 이전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시기에 블루머즈, 니커보커스(knickerbockers), 터키펁의 팬탈룬스(pantaloon) 등이 광범위하게 착용되지는 않았지만 종류면에서 비교적 다양한 바지형태가 출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²⁴⁾.

제 1차대전동안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활동과 여성의식의 변화로 여성의 복식이 남장화되어 갔으며, 1920년대 퍼재머즈(pajamas)는 남성용 잠옷에서 힌트를 얻어 디자인되기 시작하여 해변가나 집에서 착용되었고, 1930년대는 트라우저스(trousers) (Fig. 8)와 라운지 퍼재머즈(lounge pajamas), 콕테일 퍼재머즈(cocktail pajamas), 쇼츠(shorts), 자드퍼즈(jodhpurs), 쿨릿츠(culottes) 등의 다양한 바지형태가 나타났으나 유행시키지는 못했다.

1939년에 발발한 세계적인 규모의 제 2차대전은 여성에게 모든 분야의 실질적인 정착 및 전진의 시대를 예기해 주었으며 동시에 바지에 있어서 기능적인 새로운 영역을 열리게 하였다. 전쟁과 함께 직업전선에서의 여성의 위치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등 융통성 있고 다양한 여성의 역할에 의해 필수불가결한 의복함목으로 바지가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이 시대에 여가와 스포츠

를 즐기기 위한 바지종류에는 '자드퍼즈, 쇼츠, 쿨릿츠, 페달푸셔스(pedal pushers), 퍼재머즈, 블루머즈 등의 다양한 형태가 모양과 직물등에서 개성을 띠며 발전하기 시작하였다'²⁴⁾. 제 2차대전 종전후 미국은 특히 데님(denim)으로 만든 블루진스(blue jeans)를 대량생산하였다. 블루진스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대유행하기 시작했으며²⁴⁾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널리 애용되는 바지가 되었다.

따라서 여성이 바지를 일상복으로 입게 되었다는 것은 남성과 동등하게 활동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여성해방 운동 가운데 하나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다.

3. 테일러드 슈트(tailored suit)의 등장

여성을 속박해오던 폐쇄사회에서 생활의 속박은 복식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여성의 패션은 남성의 지위와 품위를 과시하기 위한 동반자의 차림으로 족하였다¹¹⁾. 남성이 원하는 여성복식이란 미관상 아름다운 것임으로, 여성 자신도 육체적으로 불편하고 활동에 제한을 받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1840년경 노동여성의 부장은 여성들의 신체적인 활동을 제약하여 일의 능률을 저하시키고 여성자신에게 무력감을 느끼게 하였다¹⁸⁾. 1866년 후반은 크리놀린 축소기로 접어들고 있던 시기로 프랑스에서는 산업인구의 33%가 여성이었으며 여성이 공장에 진출함에 따라 여성문제는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또한 사회참여의 증가로 여성들은 기능적이고 활동적인 의복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1870년대 이후에 있어 여성의상의 간소화, 또는 남장화라는 대담한 변혁으로 남성복과 같은 더블칼라(double collar)의 재킷과 스커트가 분리된 활동적인 투피스 슈트(two-piece suit)가 나오게 되었다¹⁷⁾. 1890년경부터는 영국 여성의 스포츠웨어가 기초를 이루는 투피스 슈트가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어떤 생활과 장소에도 적용할 수 있는 편리함 때문에 이 복식은 모든 계층으로 보급되었다. 한편 블라우스와 스커트로 간편하게 차려입은 여성들이 늘어났다.

제 1차세계대전 결과 여성들이 사회로 활발히 진출함에 따라 이전에 즐기던 치마단은 전쟁과 더불어 짧아졌으며 1914년에서 1929년 사이에 테일러드 슈트가 정립되었다¹⁸⁾. 그리고 1920년대에 여성들은 기능성을 요구하는 시대감각에 맞도록 니트(knit)로 만든 쓰리피스 슈



Fig. 9. Marlene Dietrich 의 trouser suit (1932) M.& A. Batterberry: Fashion, p 326.

트(three-piece suit)를 입기도 하였다¹⁶⁾.

1924년에서 1925년에 가슴을 납작하게 하고 허리선을 완화시킨 보이쉬 스타일(boyish style)이 유행하였는데 이 스타일은 여자다움을 일부러 피하려는 경향이 더욱 강화된 의상이었다¹⁶⁾. 그후 1932년 영화배우 마레네 디트리히(Marlene Dietrich)에 의해 착용된 트라우저스 슈트(trousers suit)를 (Fig. 9)에서 볼 수 있는데 그 당시 파리의 경찰관이 그녀를 도시로부터 쫓아내려고 했던 것을 보면 그때까지도 트라우저스 슈트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았던 것 같다²⁶⁾. 이와같이 20세기에 들어온 이래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의 발전은 여성복식을 획기적인 변화와 진보로 이끌었다. 이것은 인간의식의 진보와 함께 복식도 상호작용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제 2차대전동안 전시의 물자절약을 위한 실용복이 소개되어 자연적으로 여성의 복식은 기능적이고 간소화 되었으며 (Fig. 10), 여성들은 간소한 직업복과 노동복을 입고 남자들이 해야 할 몫을 거뜬히 해냈다. 따라서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거기에 적합한 복식이 디자인 되었고, 또한 20세기의 활동적인 스포츠웨어



Fig. 10. 제2차 대전중의 복장(1943)
Michael and Arian Batterberry: Fashion, p 331.

는 직업복의 유행추세에 영향을 끼쳤다.

결과적으로 오랜 역사를 통해 투쟁해온 여성해방 운동가들의 노력의 결실과 여성들의 의식변화로 모든 여성들은 기능적이고 편리한 직업복을 입고 일하면서 자신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4. 스포츠웨어(sportswear)의 변천

여성들은 의식이 깨어남에 따라 남성과 평등하고자 하는 의식의 표출로 남성복과 유사한 의복들을 착용하기 시작하였다. 그 대표적인 의상이 바지이며, 이 바지는 스포츠웨어의 변천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 또한 여성들의 바지 차림이 일상복으로 입혀지는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시되어 경찰에게 규제를 받았을 때도 스포츠웨어로서 과도기적 역할을 유지해 나갔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스포츠웨어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849년경 까지도 여성들은 해변가에서 수영복 차림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것을 꺼렸으나, 1860년대 말에 수영을 위한 특별한 복장이 디자인되었다(Fig. 11).

1900년대에는 아네트 켈러만(Annette Kellerman) 처럼 수영선수들이 수영복을 간소화 하는데 공헌하였으며 1927년에는 수영복이 몸에 꼭 맞는 울(wool)로 된 쇼츠



Fig. 11. 1860년대의 수영복
Blanche, Payne: History of Costume, p 518.



Fig. 12. 1927년 수영복
Michael and Arane Batterberry: Fashion, p 302.

로 만들어졌다(Fig. 12). 2차대전동안 팬츠위에 짧은 플레어 스커트(flare skirt)가 붙은 수영복이 등장하였으며 그후 수영복은 계속 변모하여 비키니 수영복에까지

다다른다.

한편 1850년 이후 여자들의 세계에서도 승마와 그의 스포츠가 성행함에 따라 드로워즈나 판탈롱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¹⁸⁾. 1880년 중반부터 여성들의 스포츠 참여는 싸이클링, 수영, 펜싱, 크리켓, 요트타기, 골프, 테니스등에 나타났다²⁴⁾.

1890년대에 싸이클링은 남성과 여성의 중요한 운동종목이 되었으며 싸이클링에 대한 열기로 스포츠복이 대두되었다. 남성과 여성 모두는 납작한 신, 울로 된 스타킹, 셰일러 모자, 노포크 재킷(norfolk jacket), 니커버커스(knickerbockers)의 합리적인 의상을 입게 되었는데 단지, 니커버커스는 남성의 것보다 여성의 것을 더 부풀렸다는 점이 달랐다²⁷⁾. 그후 여성들은 자전거를 탈 때는 계속해서 니커버커스를 착용하였다.

1917년경에 승마복으로 스커트 없이 재킷과 브리치스(breeches)가 패션지에 소개되었지만 이 복식은 공공연하게 입혀지기에는 시기상조였다²⁷⁾. 그러나 1930년대에는 여성들이 승마복으로 바지를 착용하고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말을 타기 시작하였다²⁷⁾.



Fig. 13. 1928년의 스키복을 입은 모습
Charlie Lee-Potter: Sportswear in Vogue, p 31.

1885년 벨린(Ada. Ballin)부인은 테니스복으로 다시 블루머즈를 추천하였다. 그러나 발전된 형태의 여성 테니스복이란 발목까지 오는 플레어 스커트의 유행에 불과했다. 그후 1931년 포리스트홀(Forest Hall)에서 스톨(Fearnley Witting Stall)부인은 다리를 노출한 채로 정구장에 나왔으며, 1933년 미국선수인 앨리스마블(Alice Mable)은 윌블덤(Wimbledon)에서 쇼츠를 입었고 같은 해 헬렌자콥스(Helen Jacobs) 역시 흰 쇼츠를 입었다. 그리하여 1936년부터 테니스복으로 쇼츠가 일반화 되었지만, 1939년부터는 꼭맞는 팬츠위에 짧은 스커트를 입는 것이 쇼츠보다 더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

1900년대 스키복이 등장하였고(Fig. 13), 1920년대에 자동차 보급의 증가와 함께 여성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바지는 스포츠웨어로서 필수품이 되었으며¹⁸⁾ 스포츠웨어가 비교적 다양해져 긴바지, 쿨릿츠, 쇼츠 등이 두드러지게 유행하였다.

제 2차대전 동안 변천된 대표적인 스포츠웨어를 살펴보면 쿨릿츠, 쇼츠, 니커버커스가 주로 활용된 사이클링

복(Fig. 14), 잘 맞게 재단된 브리치스의 승마복, 그리고 팬츠 위에 짧은 플레어스커트를 착용한 수영복과 테니스복 등을 들 수 있겠다. 이와같이 스포츠웨어는 지속적인 변천을 계속하면서 기능성과 활동성이 더욱 향상되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남녀평등권과 여성의 참정권 획득을 위해 여성해방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여성복식의 변화 양상을 밝혀내는데 목적을 두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서구여성 복식은 여성해방운동의 영향을 받아 기능적이고 활동적으로 변화되었으며 과거의 전통적인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활을 추구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의식이 그대로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미 선진국의 여성들이 자신들의 의상을 간소화시키고 남자들과 동등하게 바지를 착용하기 위해서 100여년이 넘게 투쟁해 온 사실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영국, 프랑스, 미국의 여성해방 운동의 발달과정을 고찰하면서 여성해방 운동가들이 입었던 복식을 살펴보고 그에 영향을 받은 일반여성들의 복식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여성해방운동으로 인해 변화된 구미 선진국 여성들의 복식으로는 첫째 쿨릿츠의 추방, 둘째 바지의 등장, 셋째 테일러드 슈트의 등장, 넷째 스포츠웨어의 변천 등 4가지 주요 변화양상이 있었다.

이와같이 제 2차세계대전이 종전된 후에는 여성해방운동의 결실로 서구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여성들은 참정권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저항이 가장 심했던 바지를 일상복으로 착용하는 것이 묵인되었다. 따라서 여성해방 운동이 여성복식을 기능화와 남성화라는 변화 추세로 이끄는 데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앞으로 여성해방운동과 관련지어 복식을 연구하게 될 복식연구가를 위해 몇마디 제언을 하자면, 1960년 이후 또다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여성해방운동과 현대복식과의 상호관계를 연구하여 그 영향으로 표출되고 있는 현대복식의 양상을 집중 고찰해 보는 것도 의의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우리가 착용하고 있는 현대의 복식이 내포한 가치를 이러한 관점에서 새롭게 인식해 보고 여성복식의 미래상을 유추해 내는 것도 중요한 연구



Fig. 14. Cycling服(1940~1948)

Charlie Lee Potter: Sportswear in vogue, p 56.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1) 중앙대학교 중앙문화연구소, 여성과 생활, 중앙대학교 편집부, 52, 144, 271(1988)
- 2) 이효재, 여성과 사회, 정우사, 12, 105-140, (1989)
- 3)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여성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64, (1989)
- 4) 水田珠枝(김희은 옮김), 여성해방사상의 흐름, 백산서당, 45-51, 90, 105-107, (1983)
- 5) 마이테 알비스튀르, 다니엘 아르모가뜨(박정자 옮김), 여성은 해방되었는가?, 인간사, 12-15, 294, (1979)
- 6) 이효재, 여성해방의 이론과 현실, 창작과 비평사, 20, 35, (1980)
- 7) 玉城肇(김동희 옮김), 세계여성사, 백산서당, 188, 191-192, (1986)
- 8) F. 프라이델, A. 브린클리(朴武成 옮김), 美國現代史(1900~1981), 대학문화사, 69, (1985)
- 9) 황필호, 철학적 여성학, 종로서적, 212, (1989)
- 10) Contini Mila, 5000 years of Fashion, Secaucus: charwell Books Inc., 125, (1977)
- 11) Marilyn J. Horn, Lois M. Gurel (이화연, 민동원, 손미영 옮김), The Second Skin (의복:제 2의 피부), 까치, 213-215, 216-217, (1988)
- 12) Susan B. Kaiser (김순심, 유은희, 이유허, 이은숙 옮김),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복식사회심리학), 경춘사, 10, (1990)
- 13) Payne, Blanche (이종남, 안혜준, 김선영, 정명숙 옮김), History of Costume (복식의 역사), 까치, 570, 605, (1988)
- 14) 尹點順, 프레데릭 워르트의 작품세계와 크리놀린 시대의 복식, 호남대학 논문집 제 7집, 2권, 358, (1986)
- 15) 楊淑喜, Decoration의 기능과 Europe의 여성의상개혁운동, 숙명여자대학교 생활과학연구지 제1집, 48, (1983)
- 16) 정홍숙, 근대복식문화사, 교문사, 169, 192-200, (1989)
- 17) 정홍숙, Art Nouveau와 Art Deco 예술양식을 통해 본 복식(Clothing)의 조형예술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4, (1988).
- 18) 정홍숙, 복식문화사, 교문사, 250-274, 296-298 (1989)
- 19) 金美善, 근대서구 여성복식의 기능화 요인에 대한 고찰,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8, 55, (1983)
- 20) 최영옥, Corset에 관한 고찰, 안동대학논문집 제5집, 678-679, (1983)
- 21) 金京子, Slacks구성을 위한 인체계측, 대한가정학회지 17 No. 2, 2, (1979)
- 22) 申永珍, 양복바지에 대한 역사적 고찰,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 (1984)
- 23) 강혜원, 의상사회심리학, 교문사, 189, 191, (1990)
- 24) 文慶玉, 기능적으로 본 여성양복바지의 변천 과정에 대한 고찰,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11, 20-28, 42 (1981)
- 25) 朴敏子, Bloomer 衣裳의 역사적 고찰, 경희대학교 논문집 제16권, 232, (1987)
- 26) Batterberry Michael & Ariane, Fashion: The Mirror of History, 326, (1982)
- 27) Black J. Anderson & Garland Madge, A History of Fashion, London: Orbis Publishing Limited New York: William Morrow & Co. Inc., 32-37, 297, (1975)